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글로벌 무대 도전 ‘첫 발’

실리콘밸리 서밋 참가기업 발대식 휴먼아이티솔루션 등 6개사 참여 글로벌 네트워크·전문 멘토링 기회도 “지역-창업기업 동반성장 지원”

전남도가 지역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해 글로벌 으뜸기업으로 육성하는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55 프로젝트’를 역점 추진하는 가운데 5일 실리콘밸리 서밋 발대식을 가졌다.

글로벌 서밋은 플러그앤플레이 본사에서 개최된다. 전남 기업이 플러그앤플레이

이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전문 멘토링을 통해 해외 진출 기회를 모색하는 자리다.

이번 서밋에는 해외 벤처투자자, IT 기업 및 파트너사 등 약 4천 명의 참가자가 함께해 참여 기업에 투자 유치와 함께 다양한 네트워킹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도청 정약용실에서 열린 발대식에는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6개사 대표와 세계적 창업기업 육성 기관인 플러그앤플레이(Plug and Play)의 조용준 대표(한국 지사)가 참석했다.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은 ㈜휴먼아이

티솔루션(대표 최봉두·디지털헬스케어 S/W개발), ㈜에이비알(대표 김유태·패배터리활용 이차전지 제재조) ㈜해신(대표 김운봉·해삼가공식품 제조), 좋은영농조합법인(대표 이기선·나주배 착즙주스 제조), 오엠오(대표 허누림·식용근충식품 제조), ㈜슈니테크(대표 정승호·친환경 김중자 배양필름 제작)다.

행사에선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글로벌 서밋 참여를 위한 노력과 준비 과정을 공유했다.

전남도는 지난 1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인 소비자 전자제품 전시회(CES) 2024에서 플러그앤플레이와 글로벌 벤처창업기업 육성 업무 협약을 하고, 이에 따라 전남 글로벌 으뜸기업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서밋에 참여하는 6개 기업을 포함한 14개 사는 지난 3개월간 실리콘밸리 전문가 1대1 멘토링, 영문 IR 피칭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통해 해외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에서 해외시장 진출 육성 프로그램을 통해 글로벌 서밋에 참가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만큼 참여

기업이 많은 투자를 받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달라”며 “지역에서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도록 세계 최고의 멘토링과 강력한 네트워킹을 자랑하는 플러그앤플레이가 적극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전남도는 수도권 중심의 국내 창업생태계 불균형 극복을 위해 지역과 창업기업이 동반성장하도록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등도 출연기관, 지역대학 등 전문가들과 협력해 다양한 창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오지현 기자 jinyun.oh@jnilbo.com

광주시, 2024년산 공공비축미 4813톤 매입

북구 석곡·광산구 본량 첫 수매 강대찬·새청무 등 2개 품종 대상

광주시는 5일 북구 석곡동, 광산구 본량동 등 2곳에서 2024년산 건조벼 첫 매입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총 4813톤의 공공비축미를 매입한다.

광주시는 올해 정부 매입물량 49만 5000톤 가운데 공공비축미 3142톤, 시장격리곡 1671톤 등 총 4813톤을 매입받았다. 이는 광역시·도 중 인천 다음으로 많은 공공비축 매입량이다.

광주시는 건조벼 4129톤, 산물벼 198톤,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 등 농림부 우선

농가직접 배정물량 486톤 등을 매입한다. 매입품종은 강대찬·새청무 2개 품종이다.

2024년산 공공비축미는 매입 직후 포대당 4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가지급금은 수확기 평균 산지쌀값을 기준으로 12월31일까지 최종 지급할 예정이다.

원활한 매입을 위해 4개 자치구에서 수매 절차를 진행하고, 13곳의 정부양곡 보관창고에 나눠 보관한다.

보관물량은 2025년 1월부터 복지용 쌀로 가공·도정해 사회취약계층에 배부할 계획이다.

노병하기자



광산구-강진군 주민자치 교류 광주 박병규 광산구청장과 광산민 강진군 주민자치협의회 회장 등이 5일 강진아트홀에서 열린 공동 연수 행사 2024년 광산구 주민자치한마당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 광산구 제공

영암 무화과·고흥 유자 ‘특화 피자’ 개발

반올림피자와 협업 통해 출시 예정 남도국제미식산업박람회 성공 기대

전남 대표 특산물인 영암 무화과와 고흥 유자가 국내 대표 피자 브랜드 중 하나인 ‘반올림피자’와 만나 이달 말 지역 특화피자로 소비자를 찾아간다.

신메뉴 ‘영암 무화과 고르곤졸라 피자’는 고흥 유자소스 위에 영암 무화과를 듬뿍 올려 생무화과의 식감을 그대로 살리고, 고르곤졸라 치즈를 아낌없이 사용해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다.

전남도는 신메뉴 출시에 앞서 지난 9월 말 제30회 국제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무료 시식 이벤트를 진행해 인기를 끌었다.

무화과의 화려한 비주얼과 함께 달콤한 유자 향이 어우러져 보는 재미와 먹는 재미가 있는 피자라는 호평이 이어졌다.

무화과는 클레오파트라가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 즐겨 먹은 ‘여왕의 과일’로, 이집트에선 4000년 전부터 무화과를 키운 기록이 전해지는 등 인류가 재배한 최초

의 과수 중 하나다.

단백질 분해효소인 피신이 풍부해 소화 작용을 돕고, 비타민과 섬유질, 폴리페놀 등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 노화방지도 탁월한 효능이 있다. 영암은 비옥한 토지와 더불어 맑은 물을 자랑하는 곳으로, 아열대 식물인 무화과가 자라기 알맞은 지역이다.

유자는 비타민C가 레몬의 3배 가량 함유돼 있고, 구연산이 풍부해 감기 예방에 효과적이다. 피로 회복에 좋은 유기산 성분도 레몬, 매실보다 많다. 국내 최대 생산지인 고흥의 유자는 지리적표시 제14호로 등록돼 있다.

주순선 전남도 관광체육국장은 5일 “2025 남도국제미식 산업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해 추진된 이번 협업을 계기로 남도의 맛을 널리 알릴 계획”이라며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상품을 소비하는 로코노미(Local+Economy) 트렌드가 지역관광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전남도, 가축분뇨 처리 국비사업 210억 ‘전국 최다’

축산악취 개선 등 5개 확보 적정처리·자원화 확대기로

전남도는 내년도가축분뇨 처리비로 국비 210억원을 확보했다. 전국 시·도 중 가장 많은 액수로, 가축분뇨 적정처리와 자원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5일 전남도에 따르면 가축분뇨 처리와 관련, 축산악취 개선과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사업,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와 에너지화, 가축분뇨 이용촉진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정부 예산 210억원을 확보했다.

축산악취 개선사업은 축산농가 등의 가축분뇨 처리 개선, 악취 저감 등을 위해 퇴

비사, 액비 저장조, 악취 저감시설, 분뇨 처리 기계·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나주·곡성·강진·함평에 45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은 축산악취 발생지역의 실시간 정보를 수집·분석·제공해 효과적 악취저감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흥·화순·함평에 1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공동자원화시설 개·보수 사업은 가축분뇨의 안정적 공동처리를 위해 기존 공동자원화시설을 보강하는 사업으로, 장흥에 8억4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은 가축

분뇨를 활용, 전기·가스·고체연료·바이오차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담양 전기 생산, 고흥 바이오차 생산·공급에 141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가축분뇨 이용촉진사업은 퇴·액비의 농경지 환원을 촉진, 경축순환농업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전체 시·군에 13억원을 지원한다.

박도환 전남도 축산정책과장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사업비로 쾌적한 축산환경에 앞장설 여건을 마련했다”며 “특히 환경친화 축산을 선도하기 위해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에너지화 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대한민국 집중안전점검’ 2년 연속 우수

기관장 관심도·안전문화 확산 호평 특고세 등 국비 16억7천만원 확보

광주시가 ‘2024년 대한민국 안전대전 집중안전점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2년 연속 안전 우수기관 달성이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 ‘대한민국 안전대전 집중안전점검’ 지자체 평가에서 안전점검 실효성 등 5개 분야 37개 세부지표에 대한 성과, 기관장의 관심도, 시·도 추진결과 발표 등을 종합한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광주시는 지난 4월22일부터 6월21일까

지 총 61일 간 공무원, 민간전문가, 시민단체, 시민 등 총 2961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 어린이놀이시설 등 총 769개소를 점검했다.

광주시는 평가지표 모든 항목에서 높은 등급을 받았다. 특히 ‘기관장의 현장점검 참여 등 높은 관심도’, ‘안전캠페인, 취약계층 안전점검, 행복 안전꾸러미 전달 등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 실적’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17개 시·도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돼 지난해 이어 국무총리 표창을 받을 예정이다.

광주시는 집중안전점검 대상 시설 보수·보강에 필요한 재난안전특고세 11억

9000만원을 확보했으며, 행정안전부 2024 사회재난 피해저감사업 공모를 통해 2개 사업(4억8000만원)이 선정되는 등 재난 안전 예방사업과 국비예산을 확보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이번 집중안전점검 최우수기관 선정은 광주시민과 기관, 단체·협회 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다 같이 협력해 이룬 값진 성과다”며 “하지만 여전히 시민의 일상 속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만큼 더 꼼꼼히 살피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 도시 광주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

광주시, ‘민주역사 토크콘서트’ 개최

내일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서

광주시는 민주시민교육의 하나로 7일 5·18민주화운동 교육관에서 ‘민주역사 토크콘서트’를 개최한다.

5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강연에서는 역사학자인 신주백 성공회대학교 교수와 치유예술가 주홍 작가가 ‘광주의 민주역사’를 조망한다.

신 교수는 ‘독립·호국 맥락과 광주의 근현대 경험-도시 역사디자인의 디딤돌 찾

기’를 주제로, 주 작가는 ‘치유예술과 샌드아트’를 주제로 강연을 펼친다.

이번 강연은 ‘민주시민교육’ 유튜브 생중계되며, 누구나 장소에 상관없이 강연을 들을 수 있다.

박용수 민주인권평화국장은 “자랑스러운 광주민주역사에 대한 자부심을 갖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한 양질의 민주시민교육 콘텐츠를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노병하기자